

노관규 순천시장 “보행자 없는 도시는 죽은 도시”

파리 사람중심 도시정책 ‘15분 도시 프로젝트’ 차 중심 도로 폐쇄...자전거·보행자 공간 전환

현재 세계 선진 도시들은 ‘자동차’와는 멀어지고 ‘사람’이 걷고,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는 ‘사람 중심’의 도시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그중 새로운 도시 개념인 ‘15분 도시 또는 N분 도시’는 프랑스 파리, 호주 멜버른 등의 대도시들이 채택하고 있는 만큼 더욱 주목받고 있다.

15분 도시란 시민 누구나 15분 이내에 문화·의료·교육·복지·여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도시 개념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15분 도시’로 대표되는 파리를 이번 유럽 일정 중 마지막 도시로 방문했다.

지난 10~11일 상젤리제 거리, 세느강변 도로, 리볼리 거리, 레알 거리, 파리 플라주, 프롬나드 플랑테 등 소위 자동차보다 사람을 우선시한

도시 공간 혁신의 현장을 꼼꼼히 살펴봤다.

파리의 ‘안 이달고’ 시장은 15분 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해 자동차 중심의 도로를 보행자와 자전거가 중심이 되도록 전환했다. 대표적 사례로 세느강변 도로의 차량 통행을 폐쇄하고 보행자 거리로 지정된 것이며, 상업 중심지인 리볼리 거리도 개조했다. 6개 차선이었던 도로는 1개 차선만 남기고 나머지는 자전거와 보행자를 위한 공간으로 바꾸며 과감한 변화를 이뤄냈다.

노관규 시장은 파리의 사례에서 보듯 “자동차가 편한 곳은 상권이 살아나기 어렵다. 시내 중심으로 자동차가 편하게 다니는 도시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며 “사람이 걷도록 해야 되고,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



들어줘야 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행정의 계획과 예산의 집행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있는 상인들이 먼저 생각을 바꾸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순천시는 2023영원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사람 중심의 새로운 도시 모델을 창조하고 있다.

노 시장은 “모두가 지혜를 모아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고민하고 또 변화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도시를 확장하지 않더라도 상권을 활성화하고 소비권을 끌어들이며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순천’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파리의 폐쇄도 부지를 활용해 공원으로 만든 ‘프롬나드 플랑테’와 고속도로를 도심 속 여를 휴양지로 만든 ‘파리 플라주’ 등 사례를 통해 순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접목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순천=조순의 기자

구례, 평생학습센터 3곳 개소 본격 운영

구례읍·문척면·간전면, 주민 맞춤형 프로그램 진행

구례군은 구례읍, 문척면, 간전면 3곳에 평생학습센터를 지난 7일 개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소한 평생학습센터는 지난 3월 교육부로부터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된 구례군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군은 읍면에 설치된 평생학습센터를 통해 주민수요를 반영한 주민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구례읍은 민화 그리기, 문척면은 제과제빵, 간전면은 웃음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순호 군수는 “평생학습 도시의 목적은 주민 누구나 시간과 공간의

제한 없이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며, “우리 주민들이 더욱 활력 있고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례군은 보편적 평생학습 도시의 실현을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전략적 대안으로 보고 평생학습 사각지대 해소, 주민 학습 의욕 촉진, 마을 공동체 소통 활성화 등 지역의 정주 여건과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구례=오광범 기자

곡성, 6·25참전용사 무공훈장 전수

내고장 영웅 찾기’ 통해 참전용사 훈장

곡성군이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6·25참전용사였던 장세규님(만91세)에게 국방부장관 훈장증 및 훈장을 전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무공훈장 전수는 육군본부 6·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과 곡성군의 협업을 통해 이뤄졌다. 조사단은 지난 3월부터 곡성군수와 의 면담을 시작으로 곡성군 집중 탐문 활동을 전개하며 생존 중인 장세규님을 찾았다.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6.25전쟁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은 6.25전쟁 당시 훈장 수여가 결정됐지만 실물 훈장을 받지 못한 수훈자와 유가족을 찾아 훈장을 수여하는 사업이

다. 또한 이 사업의 일환인 ‘내고장 영웅 찾기 캠페인’을 통해 무공훈장 수여자를 발굴한 호국영웅의 공훈을 기리고 명예를 존중하며 국민의 애국정신을 고취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6월 호국보훈의 달 및 현충일을 맞이해 무공훈장을 생존해 계신 국가공공자에게 전수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 묵숨 바쳐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그들의 희생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고 그들의 헌신에 감사드리며 무공훈장 수여를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전했다.

/곡성=황성민 기자

광양시의회, 정례회 개최 오는 22일까지 11일간 일정

광양시의회는 12일 제31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22일까지 11일간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2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포함하여 조례안 12건, 일반안건 3건 등 총 15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13일부터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정 안건을 심사하며, 19일부터 2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고 마지막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정례회를 마무리한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광양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정구호 의원), 광양시 발달장애인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문섭 의원), 광양시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문섭 의원), 광양시 경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송재천 의원), 광양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철수 의원), 광양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최대원 의원), 광양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서영배 의원) 등 7건이다. 서영배 의장은 “지난해 예산이 당초 계획한 대로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불필요한 지출이나 낭비는 없는지 꼼꼼하게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보성 ‘톡!톡! 튀는 MZ세대 공직자 소통 교육’ 개최

120여 명 대상 힐링 교육... 군수와 소통 시간도 마련



보성군은 지난 9일 제암산자연휴양림에서 산하 8급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2023년 보성군 톡!톡! 튀는 MZ

세대 공직자 소통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MZ세대 공직자들의 조직력을 강화하고 직장 내 소통 문

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9일부터 16일까지 기수별 약 40명씩 총 3회로 나눠 진행된다.

이날 교육은 나와 타인의 이해를 위한 조직 적응 교육, 직원 간 신뢰와 자긍심 제고를 위한 공감과 소통의 시간,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재충전의 트레킹 등 힐링과 조직 역량 강화 프로그램 위주로 추진됐다.

특히, 직원들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한 김철우 보성군수는 소통의 시간을 통해 MZ세대 직원들과 격의 없이 다양한 의견을 나눠 큰 호응을 얻었다.

/보성=장국모 기자

광양, 6월 확대간부회의 열고 주요 현안 논의

정인화 광양시장,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당부

광양시는 정인화 광양시장 주재로 시청 상황실에서 국·소장과 실·과·소장 등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6월 중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추진해야 할 당면 현안문제를 공유하고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정 시장은 “현재 우리 시 재정집행 추진율이 목표액 대비 저조하므로 남은 상반기 동안 예산 조기 집행에

신경 써서 지역경제 순환 및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 관련해 광양시도 특별법에 대비해 면밀히 준비하길 주문했다.

스마트 구인구직 플랫폼 구축 운영 관련해서 “구인을 원하는 기업과 일하고 싶은 구직자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플랫폼 구축을 위해

관련 부서와 자문위원, 일반 시민들의 의견 청취 등 응역 발주 전 사전검토에 철저히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밖에도 ▲요양원 노인학대 등 예방책 수립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 사전 보고 철저 ▲일반·휴게음식점 입식 탁자 및 경사로 설치 사업 대상자 선정 철저 등 주로 현안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할 방법을 강구할 것을 지시하며 간부회의를 마무리했다.

/광양=조순의 기자

순천, 여름철 박람회장 등 식품안전관리 강화

박람회장 식음료 안전관리 지원 등 식품사고 예방 철저

순천시가 기온이 상승하는 여름철을 대비해 식중독 등 식품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대책을 강화하고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 맞이를 위해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관광지 및 숙박업소 주변, 주요상권 음식점을 대상으로 특별 위생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4월 박람회 개최 이후부터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총 41명을 위촉하여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시는 정원박람회장 내 식음료안전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식품위생담당 공무원과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이 상주하며 박람회장 식음료시설에 대한 일일 위생점검과 지도, 조리식품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시는 지난 3월부터 순천시 식품위생과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위생 지도 점검에 대한 업소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시는 정부정책 등 최신 정보와 함께 위생점검 사전 예고제를 운영해 업소들과 소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식중독 발생 시 대규모 환자가 생길 수 있는 집단급식소와 관련 업체의 정기적인 위생점검과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순천=조순의 기자

소통하는 대한민국

그 중심에 1등 보성군

농산물 지리적표시 제1호
보성녹차

수산물 지리적표시 제1호
벌교꼬막

전국 최대 주산지
보성키위

보성몰

집에서 찜정 보성의 우수농특산물을 만나보세요!

mall.boseong.go.kr **보성몰** ▼ 검색

유튜브 구독하고 댓글 달면 보성녹차를 얻을 수 있다고?!

보성군 대표 SNS 가입하기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reenboseong/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boseonglove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greenboseong/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hannel/UCN2Y1YUyYkSbhc69gCpyQ

※ 매달 추첨을 통해 보성군 페이스북에 당첨자 게시를 합니다.